

알찬 來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열풍이 불고간 時節

박 경 구

열풍이 불고간 時節...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discussing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 during the 1960s.)

졸업소감

졸업소감... (A collection of graduation essays or reflections from students.)

現代韓國詩의 이미지와 그樣相

現代韓國詩의 이미지와 그樣相... (An analysis of the imagery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Korean poetry.)



(金時泰)

〈上〉

마음의 故郷을 떠나는 내 記錄들이

마음의 故郷을 떠나는 내 記錄들이... (A collection of personal essays or diary entries about leaving one's hometown.)

連載目次	
1. 浪浪의 Image	浪浪의 Image
2. 內面的 Image	內面的 Image
3. 裝飾的 Image	裝飾的 Image
4. 立体的 Image	立体的 Image

科學的 諸事實을 大部分... (A section discussing scientific facts and their implications, possibly related to the 'Image' series.)

世界戰後文學全集

全10卷

新丘文化社濟州連絡所

英美德語文學叢書

全10卷

한글출판문화受賞

韓國의 人間像

全1卷

歷史를 누비는 二〇〇餘의 人間發掘!

世界의 人間像

全1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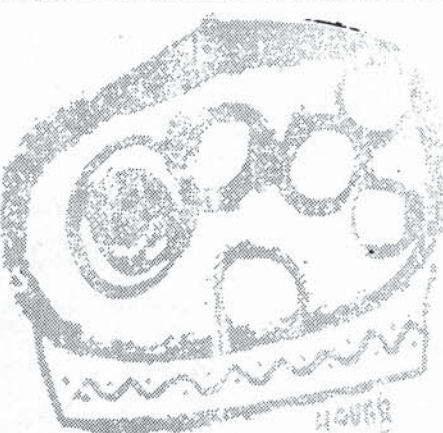
보는 恩索의 展望臺!

金慶善

전화 一四一

仕와 친절로
분에게
타일과 質的으로
다
를 손색없이 고쳐
서서 이 機會
劇場 전년 電話九〇一

洪性



꽃
받
()

오랜 세월의 바래움에
알알이 아문 상념。
파아란 연꽃 마디 마디
먼—그리움은
불멸에의 연원은
아자애기 발돋움
가슴에의
이슬이 된다。

허나
여진 충만한 밑에와

강
북
자

吾을 해는 소년의
 탐고 탐은 苦待(苦待)에
 서자하는 누마음의 대무세?
 사곳
 母道의 넘치는 애정
 봄을 빼고
 한아름의 수남(袖箱)을
 실음에의 선웃음을 잊혀하는
 년
 낙엽에의 만가와 잔재들의 대화속에
 하얀 생명으로 부터의 보존물
 하고 새해야 했지만
 吾을 해는 소년의
 탐고 탐은 苦待(苦待)에
 서자하는 누마음의 대무세?
 사곳
 母道의 넘치는 애정
 봄을 빼고
 한아름의 수남(袖箱)을
 실음에의 선웃음을 잊혀하는
 년
 낙엽에의 만가와 잔재들의 대화속에
 하얀 생명으로 부터의 보존물
 하고 새해야 했지만

상감! 놀래지 마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했던! 온백생들이 다
 투어 흠도졌던 내 글
 판이 없어졌오.
 중전! 네? 글판이?
 상감! 그렇소. 그게
 없어졌오. 선왕께서
 하하실때 친히 내손에
 넘겨 주셨던 그 글판
 이 없어졌오.
 상감! 그 글판이
 가다 다시 찾아
 유제성이있담 언젠
 가 다시 찾을 채리구
 있겠지.
 중전! 왕궁하옵니다.
 상감! 그러면 곧저
 상감! 아가 애기한그
 절 줄 알라불수 없을
 까?
 중전! 생각중이요
 유니
 호를만들부 아뢰오.
 중전! 오나 아뢰오.
 러가 부다.
 상감! 그대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요?
 마대! 해해! 좋은거우
 주에서 동가숙 서가식
 했음조. 해해!
 상감! 허허! 네 입
 심은 지금두 여전하구
 나.
 마대! 호호!
 중전! 어인 일이시옵
 니까? 유안이 옛보담
 못해 보이나이다.
 상감! 그대?
 중전! 그렇지 않아두
 애기할 참이외서.
 강계산 근사이외서 수
 마대! 계시단다.
 마대! 네? 왜 그리
 음.
 마대! 네, 도둑이 훔
 쳐 달아나나것을 떼앗
 고선 모자가 금관을알
 에놓구 어쩔줄을 몰라
 하며 팔관리를 하구있
 는 잘못이 되오.
 상감! 뭐? 도둑이훔
 쳐 달아나나것을 떼앗
 았다구?
 마대! 네. 그러하옵니
 다.
 중전! 다행이 후손들
 이 널리 볼수있는 뜻
 으려 팔렸으면 좋겠구
 나.
 마대! 애기나옵니다. 두
 들거 깨자고요 형대를
 바꾸어 팔도양입니다.
 상감! (신음처럼) 어

原稿募集

本學會에서는 「農學會誌」 第四號를發
刊코져 여러會員및 名譽會員의 專攻
分野研究論文을 다 음과 같이 募集합니다

다 음

一、內容……專攻分野의 研究論文

洪性
和

隨
 •

想
 •

蘭아
 스키러가는 노을을
 등지체 오늘도 착잡
 히 여문 웃음이
 운을담긴 자리에
 리없는 시간의 공백

蘭아
 주변엔
 암상

했어?
 蘭아
 SINGING
 RD가 되기에
 무 어두운 현
 에 우리자신들
 내 자마기로
 내일 승리의
 부르기위해 오
 리쓰자
 힘쓰자
 ×
 ×
 ×

[illegible][illegible]

- 二、對象……本學會員 및 名譽會員(教授同)
- 三、枚數……二百字原稿紙七〇枚內外
- 四、마감……一九六七年六月十日限
- 五、提出處……本學會誌編輯室
- 六、其他 詳細한事項은 本學會로 問議

바람. (단 學生의 原稿는 指導教授의 推薦이 있어야

바다빛 같은 나의 주변에
바람은 휘휘 구름을 휘젓는다.
안개 사이로 선파를 드러내는 내 모습은
豁然히 자란
세들진 비약으로 하늘을 치솟는다.
오늘도 健實하게 사는 方法은 무엇인가
! 나의 가슴은 한없이 높고 푸르르다.

(國二·人文學同人)

못난자의 무엇인가
 구불한 부질없는 반
 함일지언정 나야
 해 하겠지.
 關아!
 가슴을 찢고
 걸어다니고 韓國
 의 엘리트라 불려
 오는 너무 어둡고
 파고들 때 내
 뜻을 타서 태어났기
 에 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그리하여 우리는 언
 제나 우울하고 못난
 몸으로 10대가 되
 어야 하나보다
 關아!
 무와 배경없는
 솜은 진흙과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다.
 다가 아예 편
 도 하진 않지만
 학의 캠퍼스
 서인지 모두들
 하는 판만 그
 새겨를 동경도
 근했지.

[illegible]

다. 또 다. 저버리지 거수축하의 몸이 먼 트리어 같아 이렇면 가 인제가는기 안겨서 있겠지 그 입에 게 나리니 상삼이 내 뜻이 마로 고 상삼이 푸속에서 후 손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보담 바깥세상에 나가 그들의 품에 안겨 우리네의 꿈을 천 환수만 있다면 그 일 만나 다행한 일이겠으 쯤전! 마마의 높으신 뜻대두 되리라 나는 상삼! 문진! 문진도 상삼! 네. 중진! 네. 중진! 그렇까? 중진! 황궁하여이다. 상삼! 주름 밑숨을; 그러면 좀 상상해하던가? 귀신처럼 알아낸 "마로 패"를 부를일이 어떨까요? 문진: 저대는것보담 해 상삼! 마마? (팔아찌) 가 해: 마왕. 세상에나 후손들이 사랑과 존

Young

상삼! 친화의 교양한 놀음!

중진! 아서마 아서.

마태! 고정하십시오.

상삼! 슬프토운 우리 네 후손들 중에 두 권 교양한것들이 있다 나 오! 슬프도마. 슬 프도마.

마태! 마마!

중진! 선왕들이 고운 때가 묻은 그것들 부 서버리다니. 오 저주 살려는!

濟州大學報 第九號 發刊 五十年四月一日

[illegible]

의. 누가 있어서 우리
 하소연을 듣어주
 의. 新春有感
 고상문
 한탄산 頂上에 났
 찼던 눈물이 더러게
 핏을 녹이고 앙상
 한 나무가 지 끝에도
 움이 물들지 가는데
 花恨을 전한지 벌써
 돌돌하얏아, 타오르
 는 태양을 보고 가
 슬이 두근거렸고 그
 이란 아비루는 전 사
 정원구석, 사람이 피
 고 있는 그녜
 겨우내 울은 제비
 배운을 열이
 팔을 보는 시
 포근한 陽光이
 季節에 대한
 인메도 겨울을
 고 있는 그녜
 겨우내 울은 제비
 배운을 열이
 팔을 보는 시
 포근한 陽光이
 季節에 대한

하고요 마는 피할수 없
우리는 어쩔수없이
하고요 마는 피할수 없

이 돌탄 내지도 이
불은 화사하게 구비
저는다. 겨울의
물은 옷과 얼어붙었
던 마음속을 울리고
저리만큼 황보아야겠다
하늘과는 또 다른가
타락은 구름새로
문하이는 내리와 어
무

제물 누른다. 산뜻
한 봄빛으로 단정
여인들의 발발한 모
습들을 보면서 가
는 발걸음으로 관되
정운. 지나. 로타리를
돌았다. 봄바다를 타
고온 나그네들이기
발을 들고 지나가고

산설력으로 세살 앞
이다. 사리사유에
아. 두루 호시탐탐
유희고 호시탐탐 富
貴功名의 진주선착장
主我的 見地에서
트지느니므로

연극인가?
有限한 자이고
無限을 對置하려는
미적은 수작이란
아니고 自然이
자기가

창가를
나누었다
두꺼웠던
몸은
울렁이고
불러
내부의 속
거
리해
버

창가를
나누었다
두꺼웠던
몸은
울렁이고
불러
내부의 속
거
리해
버

A I
八

[illegible]

음과 같이 原稿를 募集합니다

다 음

一、內容—各學科專攻分野의 論文外
詩、散文

一、枚數—六〇枚內外(二百字原稿紙)

一、 마감—一九六七年三月三〇日

一、提出處—濟州大學總學生會學藝部

도 불고
고.
먹은 피가
모든 말
이 없지
없다

나, 어서 표정하
뜻이 창백하
아니냐.

▲복 두 가지
여자에게, 男生活
귀찮단 걸 우
치 여자
반했으면 무슨
만 하던 男子는 맛
어 싸워야 한다.

신도들이여,
내가 죽었다!
살과 죽음의
선명할 때,
가엾은 건 家族과 친구
가 없나? 살인
죄를 짓고 싶
없는 중보자가
있을 테니까?

▲
三三

한 번 자
理想
죽음에
永生
있다
있는 것
바람에
그리는
하나라
● 김

兩極

여학 휴게실

보고 마운이 성례했
다고 너무 밋 이 어
무도 없음진대 두 판
을 띄고 아침의 공
기를 들며마시며 지
역의 한말기 꽃이리
자랑할을 누가 관계
하랴

오늘이 있고 세상
이 있고 내가 있
는것은 우혜로운
연의 덕택으로세만가
늘려나니 말하자면
내가 자연의 자녀로
존재하는 동안 어
머니와 같이 포용해
주시는

스스로 우아스스
게 자
가

충을

정 부렸노는 바
인간을 아
말한대로 전
무장하지 않
방울이 이슬
이 입결은
「제로」 화시

로는 籍을 부르짖고
純을 동경한 것이나
속에서는 마슬수의假
花조작이 醜陋 鄙劣
것이다.
욕심 많은 人은 奸
心 거터며 머속이 利
害關係를 제배는 主
代는 이 무슨 슬은

하늘을 보고 나를 찾 고

모든 것이 「人間的」
인 것이 아니라 善이라
되어 본다. 이리하면
제 진리란 人을 감
고 善은 道德하고
正義는 無力하고 自
正義는 無力한故로 現
在

그 진리에도 살고 싶
다. 거기서 나를 찾
고 너를 재인식할까
무한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다.

(가정과 一年)

金 才

간외 피오인 창리친
것에서 후신 모르지
그런 유신은 풀을
두. 이: 피인의 너
우 지니친 작을 하
는가보오.

준전: 이오니니다.
마테: 지당하신 심리시
우니다. 비잔하사/우
리의 후신들 사는 모
습이 하두 거친지: 작
자루 슬기로운을 잊어
가주 있으니. 그런 식
러 마땅하사옵니다.
상감: 모전.
준전: 네.
상감: 우리의 후신을
유하지마오. 인간살이
대로구나.

준전: 틀라 해라.
하신 (그위친) 네. 들
라 시니.
마테: (F.I) 상감마
마.
상감: 오 마테냐. 오
테민이로구나.
준전: 침발루 수택전
여 서상만애 네은 언
다시 모개되는 건
나.

마테: 준전마만, 이
천한 습의를 잊지 않
으시구 부르시니.
무지로 소외나.
준전: 모양이 옛 그
대로구나.

나: 후신은 오지않
으나? 불부테루
마테: 네. 불부테루
알아 보겠나이다. 해
해 M) 아주 강한
UP/DOWN 여
러반복하다가 (FO)
마테: 상감마가, 말습
드리옵기 황송하오나
해코

상감: 보이는대루 전
하렸다.
마테: 네.
준전: 마테하와라
마테: 그 존귀한 어
물어 도독의 손으로
가주 말합시다.
상감: 네? 도독이 손
으루?

마테: 금발은 가운
서에서 알의아라.
마테: 모자가 서로
두고 앉아 있나이다.
준전: 이진 친작
고있는일.
상감: 그다음 다음을
알의아라.

마테: 에미는 저
올라 갔어체를 떠지
라구 정신없읍니다. 아
들들은 공을꾸듯 금관
을 매잔지며 누운
었다. 멋다. 하옵나니
상감: 공을꾸듯 매만
구지 있나구.
마테: 네.

(계속)

(但 學生論文은 담당指導教授의 推薦이 있어야 함)

一、기타 상세한것은 總學生會學藝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一九六七、二、二八

濟州大學報 編輯部